



대림동성당

(주보성인 : 바오로)

토요 미사	오후 3시 30분 (어린이)
미사	오후 7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주일 미사	오전 6시 (일반)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10시30분(교중):1~10구역
	낮 12시(교중):11~20구역
평일 미사	오후 6시 (청년)
	월·수·금·토 : 오전 6시
	화·수·목·금 : 오전 10시
	화·목 : 오후 7시 30분

사무실

주임신부(박성우 사도요한) TEL : 02-835-1814~5
 보좌신부(이상민 바오로) (FAX : 02-835-1816)
 TEL : 02-835-1813
 수녀원 (장 도미니카 수녀) TEL : 02-835-1812
 (천 바울리나 수녀) TEL : 02-835-1810
 연령회회장(정기원 다마스) H.P : 010-5476-6833

고해성사	추후 공지
병자영성체	추후 공지
유아세례	씩수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4시30분(사무실에 신청)
혼인면담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11시(사무실에 신청)
잠가개·자축복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

07440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길 10(대림1동) / 홈페이지 <https://club.catholic.or.kr/daerim1004> / 이메일 daerim1004@hanmail.net

† 세례성사



새 영세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일시: 8월 22일(주일) 오후2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전체 참석인원에 제한이 있어 세례식은 세례예정자 및 대부모와 가족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 견진교리 접수

- 교리일정: 9월 26일~10월 17일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 견진성사: 10월 24일(주일) 교중미사 중
- 신청접수: 9월 19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 ※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당 사무원 인수인계

지난 5년간 본당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임슬기(안젤라) 자매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25일(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후임으로는 조아라(이레네)자매님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입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8월9일~8월15일)

이름	세례명	주소	구역
구정희	바오로	대림동 갑을평가아파트	3-6

† 성당청소 : 8월 23일(월) 5구역 청소

† 우리들의 정성(8월9일~8월15일)

주일헌금	4,592,500	-	-
교무금	8,158,000	성소후원금	178,000
건축헌금	212,000	군중후원금	10,000
감사헌금	박재형 베드로	10만원	악명 10만원
	김해란 바바나나	5만원	악명 5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지된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화방송 미사 시간

- 평일(월~토): 06시, 09시, 12시, 18시
- 주일: 06시, 09시, 12시, 18시, 21시

[묵상글]

기도로서의 각 성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상 안에서 그분의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세 가지 성사입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과 사명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선물에 힘입어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다 분명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세례성사는 출생과 같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 예배 공동체가 되어 새롭고 영원한 계획에 참여합니다.

"왕의 사제들, 거룩한 겨레"(1베드 2,9)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공통된 사제적은 예배를 위해 봉헌된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날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죽고, 신앙심 깊은 삶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일치된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모든 믿는 이들은 끊임없는 예배 생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출처: 조지 케이소릴 "삶이 곧 기도임을..." 중에서